

추석 차례상,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24.3% 싸다

27개 품목...4인 기준 8만5,923원 가격 격차 수산물·채소값 안정...육류·과일 등 상승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37곳)과 인근 대형마트(37곳)를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6만

7,762원이고, 대형마트는 평균 35만 3,685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8만5,923원(24.3%)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분류별 비율차를 보면, 채소 58.0%, 육류 29.1%, 수산물 24.4%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

트보다 가격우위를 보였다. 27개 전체 조사품목 중 19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라지의 가격은 9,788원으로 73.6%, 고사리는 9,417원으로 72.1% 저렴했으며, 시금치 또한 6,063원으로 53.2%, 국거리용 쇠고기는 2만3,049원으로 44.3%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 차례상 가격과 비교할 경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평

균가는 상승했다. 전통시장은 25만 1,442원에서 26만7,762원으로 6.5% 상승했으며, 대형마트는 31만6,058원에서 35만3,685원으로 11.9% 올랐다. 품목별로 수산물은 전반적인 어획량 증가와 정부 비축물량 공급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 와 계란은 올해 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폭염 등의 영향으로 치솟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일 또한 올해 여름 계속된 폭염과 뒤늦은 가을장마로 출하 시기가 늦어지면 서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상승했으며, 채소류는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조분환 이사는 "전통시장은 향상된 서비스와 신선한 제품들로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며 "추석 명절에는 저렴하고, 넉넉한 인심으로 맞이하는 전통시장에서 풍성하고 알뜰한 장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LG전자, '테네시 타이탄스' 후원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Nashville)에 연고를 둔 미국프로풋볼리그(NFL)팀 테네시 타이탄스(Tennessee Titans)를 3년 간 공식 후원한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가 NFL팀을 후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NFL은 미국프로농구(NBA), 미국프로야구(MLB),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와 함께 미국 4대 스포츠 중 하나로, 현지시간으로 지난 9월 2021-2022 시즌이 개막했다. LG전자는 타이탄스 홈구장 전광판 등을 통한 브랜드 광고는 물론 홈 팬들을 위한 LG 프리미엄 가전 체험공간 등을 운영한다. LG전자는 2019년 테네시주 클락스빌(Clarksville)에 세탁기 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현지 스포츠팀 후원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도 확대하고 있다.

코트라, CSR 안내 책자 발간

코트라(사장 유정열)는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를 담은 안내서인 '베트남 CSR 활동 동향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자에 따르면 베트남 진출기업들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CSR 활동을 펼쳤으며 2010년대부터는 우수 사례도 다수 눈에 띈다. 또 기업과 사회의 공영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사례도 다수 나왔고, 산업육성·기술지원에 기반을 두거나 비정부기구(NGO) 등과 연계 강화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박민준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장은 "현지인들의 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눈높이도 올라가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계속 CSR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캠코, '웃음가득 상생마켓' 오픈

캠코는 영세 지역농가와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생산 물품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캠코 웃음가득 상생마켓'을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생마켓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력해 웃음 가득한 일상을 되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은 물론 12개 캠코 지역 본부에서 발굴한 농가, 소상공인 생산품을 중간 유통단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여주 쌀, 흑산도 홍어 등 지역 특산품은 물론 중소기업 우수제품과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스마트케어팜 생산물도 회원가입 없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상생마켓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상생협력 구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입주업체와 상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사랑나눔재단 '전통시장 활력' 앞장 한가위 맞아 전통시장서 1억원어치 물품 구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 이하 재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력 회복 및 소외계층 따뜻한 명절 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인들이 십시일반 후원한 총 1억원의 성금으로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해 전국 13개 시도, 50여곳의 복지시설에 소외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0일 여도 중기중앙회에서 전통시장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들을 만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은 전통시장의

필요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반석병 망원동월드컵시장상점가조합 이사장, 임성택 화곡본동시장상점가진흥조합 이사장, 이항기 광명시장상점가진흥조합 이사장, 김장근 군포산본시장상점가진흥조합 이사장, 유기봉 인천종합여성시장조합 이사장이 참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국 13개 시도 중기중앙회 지역회장이 함께 참여한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에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따뜻한 정을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이 최근 추석을 앞두고 나눔 행사를 펼쳤다. /광주은행 제공

광은리더스클럽, 추석맞이 사랑나눔

지역아동센터 방문 후원금·후원물품 지원

광주은행은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인 '광은리더스클럽(회장 김홍균)'이 최근 추석을 앞두고 회원들의 지역사랑 뜻을 모아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복지시설인 광주 북구 소재 '소나무지역아동센터'와 서구 소재 '웃음꽃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광주은행과 광은리더스클럽 회원

들은 전자제품과 학용품 및 성금을 전달하며 복지시설 아동들을 격려했다. 광은리더스클럽은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으로 현재 26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설과 추석 등에 지역 복지시설 및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김홍균 광은리더스클럽 중앙회장(남선산업 회장)은 "광은리더스클럽은 2007년 창립 이래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지역 상생발전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aT농식품유통교육원, 유통 강사 내달 8일까지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 농식품유통교육원은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이슈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오는 10월 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유통, ESG 경영 3개 분야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면 별도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전문강사는 1차와 2차 평가과정을 거쳐 총 9인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자에게는 개인별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고 농식품유통교육원 전문강사 인력풀에 등록돼 2022년도 해당 전문분야 강의 시 우대해 초빙한다. 서류접수는 농식품유통교육원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미애 기자

'행복한 중기씨' 서포터즈 발대식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최근 여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행복한 중기씨 19+'(플러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행복한 중기씨'는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을 위해 관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찾고 알리는 대학생 서포터즈다. 이를 위해 서포터즈는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 '참 관장은 중소기업' 플랫폼 홍보 및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 운영을 맡는다. 지난 2010년 개설된 '행복한 중기씨'는 약 3,100여개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670만명 이상 방문자수를 기록중인 중소기업 분야 대표 블로그다. 이번 제19기+ '행복한 중기씨'로 선 발된 18명의 대학생들은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 영상 콘텐츠 제작 ▲중소기업 CEO 인터뷰 ▲

지역 우수 일자리 발굴 및 소개 ▲중기중앙회 주관 행사 참여 및 홍보 등 다양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서포터즈는 올해 중기중앙회가 추진해 온 '참 관장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플랫폼에 등재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바로 알기 ▲소통 리더십 ▲디지털 스토리텔링 등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서포터즈에게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중기중앙회 정책 및 인식개선 사업 전문가와 전담 멘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백동욱 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 "제19기+ 서포터즈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펼쳐 나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